‘구례 산수유꽃 축제’ 4년만에 ‘개화’

3월 11일 개막…19일까지 열려
산동면 지리산 온천 관광지 등서
공연·체험·판매전 등 40여개 행사

24번째 ‘구례 산수유꽃 축제’가 4년 만에 상춘객을 맞이한다. 지난해 봄 노란 꽃을 터뜨린 구례군 산동면 산수유 군락지 일대 모습. 〈구례군 제공〉

‘구례 산수유꽃 축제’가 오는 3월11일부터 19일까지 열리며 4년 만에 전국 상춘객을 맞이한다.

구례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24회 구례산수유꽃축제 세부추진계획 보고회’를 열고 구례산수유꽃축제추진위원회 위원 13명과 축제 일정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진정 국면을 맞아 4년 만에 열리는 축제 주제는 ‘영원한 사랑을 찾아서’이다.

축제 기간은 다음 달 11일 오후 6시부터 같은 달 19일까지이다. 산동면 지리산 온천 관광지와 산수유 군락지 마을 곳곳에서 열린다.

구례군은 축제 기간 공연과 체험, 판매전 등 40여 개 행사를 알차게 마련했다.

올해는 예년보다 인파가 더 몰릴 것으로 예상해 교통과 안전 대책에 중점을 뒀다.

개막 공연에는 TV 경연 ‘미스터트롯’으로 이름을 알린 트로트 가수 장민호가 출연한다. 구례 출신으로, TV 경연 ‘조선판스타’에서 우승을 거둔 가수 김산옥과 트로트 가수 박해신, 구례 대표 가수 이정옥도 같은 무대에 오른다.

식전 공연에서는 구례 합창단과 원촌초등학교 어린이 합창단이 산수유 대표 노래인 ‘구례의 산수유’를 부른다. 지난해 전남도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호남여성농악’의 흥겨운 무대도 이어진다.

이외 지역 청소년과 청년들이 기획하고 펼치는 ‘우리동네 버스커’ 공연과 ‘렛츠디스코’, 국가무형문화재 농악공연 등도 관객을 만난다.

구례를 찾은 어린이 가족 방문객들이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키즈데이’와 ‘휴 쉼터’ 등도 조성했다. 어린이 관객을 위한 마술 공연과 비눗방울 놀이 등도 다채롭게 마련했다.

이번 산수유꽃 축제의 대표 체험 행사로는 ‘산수유 열매 까기 대회’가 있다. 산수유 씨와 과육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우수 참여자에게는 기념품을 준다.

행사 기간 진행하는 ‘산수유꽃길 걷기’는 모두 3개 주제로 구성했다.

가족이 함께 걷기 좋은 ‘산수유패밀리웍’과 일상에서 걷기를 실천하자는 취지의 ‘산수유꽃길-지구를 위한 작은 발걸음’, 무장애 걷기 길로 마련한 ‘러브앤힐링로드’ 등이 있다.

모바일 앱 ‘워크온’을 통한 걷기 도전 행사와 주변 관광지를 들러 도장을 찍어오면 기념품을 주는 ‘모바일 스탬프 투어’도 진행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4년 동안 축제를 기다려온 관광객들을 위해 축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봄의 전령사인 산수유꽃을 시작으로 화엄사 홍매화, 구례300리 벚꽃, 섬진강 갓꽃 등 봄철 내내 우리 지역 꽃길을 걸으면서 구례의 봄 정취를 만끽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산수유꽃 축제에 이어 ‘구례300리 벚꽃축제’를 서시천체육공원과 300리 벚꽃길에서 오는 3월31일부터 4월2일까지 사흘간 개최하며 ‘봄꽃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순천 100원 마중택시, 한 달 5번까지 탈 수 있어요”

이용횟수 확대…4년간 22만5475회 달해

순천 주민이 ‘100원 마중택시’를 이용하는 모습. 〈순천시 제공〉

순천시가 대중교통 접근성이 열악한 농촌 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100원 마중택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100원 마중택시는 100원만 내면 집이나 마을회관 등에서 읍면동 목적지까지 택시를 타고 갈 수 있는 제도이다. 원하는 시간대에 택시를 배차할 수 있어 호응이 높다.

올해는 한 달 이용 횟수를 1인당 4회에서 5회로 늘렸다.

읍면동 마을 소재지와 버스 정류장과 거리가 700m(동은 1㎞) 이상 떨어진 마을에 사는 차량 미소유자라면 마중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순천시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100원 마중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 지역은 11개 읍면동 64개 마을이며, 1500명가량이 이 혜택을 받고 있다.

최근 4년간 100원 마중택시 이용 횟수는 모두 22만5475회에 달한다. 봄과 겨울철에 고령자 이용 빈도가 높으며, 장날에 가장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커뮤니티센터 수영장·목욕탕 문 닫는다

경영난 속 새 운영자 못찾아

20여 년 동안 광양시민들이 이용해온 광양커뮤니티센터〈사진〉의 수영장과 목욕탕이 경영난을 이유로 영업을 마친다.

광양시는 지난 9일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마동에 있는 광양커뮤니티센터 레포츠 시설을 폐쇄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민간에서 수탁 운영해온 레포츠 시설은 지난해 11월30일 운영 계약이 끝났다.

광양시는 새로운 운영자를 찾기 위해 5차례에 걸쳐 입찰을 했으나 유찰됐다.

이 센터는 포스코가 광양제철소 직원과 시민복지를 위해 지난 2001년 건립했다.

포스코가 기부채납한 뒤 지난 2007년까지 6년간 포스코가 위탁 운영하다 이듬해부터는 광양시가 직영 운영하고, 이곳 수영장·목욕탕은 운영을 위탁했다.

광양커뮤니티센터 수영장·목욕탕은 코로나19 이후 연간 이용객이 2020년 12만9332명, 2021년 12만6990명, 지난해(11개월) 12만6001명 등으로 2년 연속 줄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레포츠 시설을 운영해온 광양레포츠 측은 총 6억4000만원(연평균 1억5100만원)의 사용료를 내왔다. 광양레포츠가 부담한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은 2021년 1억3000만원에서 지난해 1~11월 1억3700만원으로, 5.3% 증가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시설 폐쇄 후 활용방안으로 수영장의 경우 국비 지원사업인 수소도시지원사업 홍보센터로 만들고, 목욕탕의 경우 수선 후에 시 청사가 비좁아 부족한 사무실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곡성군, 취약계층 아동에 통합서비스

‘드림 스타트 사업’ 추진
가정 방문해 양육환경 등 파악
4개 분야 26개 맞춤 서비스

곡성군이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인 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한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드림스타트사업은 0세부터 만 12세 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다. 방문을 통해 위기도를 파악하고 양육환경이 취약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선정한다.

올해 곡성군드림스타트사업은 아동을 대상으로 4개 분야에서 4개의 필수 서비스와 26개 맞춤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난해 운영된 사업 중 만족도가 높았던 24개 프로그램과 이번에 신설된 6개 프로그램과 함께 총 30개의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다.

이번에 신설된 프로그램으로는 아동의 신체 건강을 위한 생활환경 위생 개선 서비스, 영어 학습 지원, 꿈드림 봉사단 운영, 가족 화합 및 또래 아동 관계 형성을 위한 가족 캠프 등이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보육분야 아동통합사례관리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지역 내 의료기관, 학원 등 지역자원과 연계된 통합서비스가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인구정책과 맞춤돌봄팀(061-360-2937~2939)으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여수시 카드형 지역화폐 10% 할인 유지

여수시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인 ‘섬섬여수페이’ 할인율 10%를 이달에도 이어가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발행 규모는 80억원으로, 여수시는 설 맞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초부터 10% 특별할인 판매를 진행해왔다. 예산이 소진되면 할인율은 6%로 자동 전환한다.

1인당 할인 구매 한도는 카드형과 지류형을 합산해 월 50만원이다. 현금 결제 때만 할인받을 수 있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스마트폰 ‘지역상품권 착(chak)’ 앱 또는 농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에서 발급·충전할 수 있다.

카드형 여수사랑상품권 지난 2020년 발행한 후 꾸준히 규모를 늘려왔다.

지난해 3월부터 여수 여문지구에서는 섬섬여수페이 5% 추가 현장 할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4월 이후에는 진남상가까지 추가 할인을 확대한다.

한편 지류형 여수사랑상품권은 120억원 예산이 소진돼 6%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